

설화의 사료적 성격과 새 역사학으로서 설화연구

저자 (Authors)	임재해
출처 (Source)	역사민속학 (12) , 2001.6, 243-276(34 pages) The Journal of Korean Historical-forklife (12) , 2001.6, 243-276(34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역사민속학회 The Society For Korean Historical-Folklife Studies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816413
APA Style	임재해 (2001). 설화의 사료적 성격과 새 역사학으로서 설화연구. 역사민속학(12), 243-276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8/08 15:09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설화의 사료적 성격과 새 역사학으로서 설화연구

* 임재해

1. 설화의 역사성과 역사의 양면성
2. 설화의 사료적 특성과 역사 이해
3. 설화 사료의 역사적 해석과 방법
4. 구전사료로서 구비전승과 설화의 위상
5. 설화사료의 과학성 확보와 현지조사 작업
6. 역사학의 새로운 방향과 설화의 해석

* 안동대 국학부 교수,
민속학 전공

1. 설화의 역사성과 역사의 양면성¹⁾

설화는 무엇인가. 옛날이야기이다. 역사는 무엇인가. 역사도 옛날이야기나 다름 없다. ‘설화’나 ‘역사’니 하는 한자말 용어로 건주어 보면 전혀 만날 수 없는 영역인 것 같으나, 이렇게 우리말 ‘옛날이야기’로 바꾸어 놓으면 금방 한 자리에서 나란히 만날 수 있다. 이 자리를 우리는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마련하지 못했을 따름이다.

설화는 옛날 이야기이다. 그럼 역사는 옛날이야기가 아닌가? 맞다. 역사도 옛날이야기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설화로서 옛날이야기와 역사로서 옛날이야기는 같으면서 서로 다르다. 옛날에 관한 이야기라는 점에서 같다. 그러나 설화는 옛날에 관한 옛날의 이야기이기 일쑤이다. 그러나 역사는 옛날에 관한 오늘의 이야기여도 상관없다. 역사 서술을 지금 여기서 하는 것이 가능할 뿐 아니라 항상 여기서 다시 역사를 새롭게 해석하는 작업이 요청된다. 역사는 옛날에 관한 오늘의 이야기일수록 더욱 기대를 모은다. 설화는 옛날에 관한 옛날의 이야기일수록 더 흥미롭다.²⁾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만도 않다. 설화 또한 전승되면서 구연되는 가운데 옛날에 관한 오늘의 이야기로 거듭 재창조되기도 할 뿐 아니라, 역사 또한 과거의 사료나 사서에 기록된 내용은 여전히 옛날에 관한 옛날의 이야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설화와 역사의 같고 다른 점은 상대적 관계에서만 존재할 뿐 절대적인 관계로 설정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그러므로 설화의 역사적 성격을 그 자체로 따져보는 것이 더 생산적일 수 있다.

설화는 그 자체로 역사적 실체이다.³⁾ 설화는 역사적으로 존재해 왔기 때문에

- 1) 이 글은 역사민속학회 제76차 연구발표회(대우재단 세미나실, 2001년 3월 10일)에서 발표되고 토론되었다. 전신재 교수의 지정토론과 많은 회원들의 토론이 글을 완성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 2) 임재해, ‘머리말 : 설화의 역사적 성격을 주목한다’, 崔來沃 외, 說話와 歷史(集文堂, 2000), 3쪽. 계속해서 설화와 역사의 같고 다른 점을 자세하게 논의했으므로 참조하기 바란다.

역사적 실체이며 역사적 사실을 갈무리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 실체이다. 설화는 그야말로 옛날이야기이므로 역사 그 자체나 다름없다. 옛날이야기로서 설화는 ‘옛날의’ 이야기라는 점에서 ‘사료’일 수 있으며 ‘옛날에 관한’ 이야기라는 점에서 ‘역사 서술’일 수 있다. 역사학의 관점에서 보면 설화는 역사연구의 대상인 ‘사료’이자, 과거의 삶을 일정하게 해석하여 전달하는 ‘역사 서술’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역사적 사실을 전승하며 해석하고 있는 이야기라는 점에서 설화는 훌륭한 역사 구실을 한다.

‘역사(history)’란 말도 사실은 사람들이 과거에 살아온 삶의 이야기라는 뜻을 담고 있다.⁴⁾ 그것이 누구의 이야기든 일정한 즐거리를 가진 ‘이야기(story)’라는 점에서 역사는 설화와 아주 가깝게 만난다. 그러나 역사의 어원인 그리스어의 historia는 ‘탐구’ 또는 ‘알아내는 일’을 뜻하는데, 결국 과거 사실을 탐구하여 알아낸 지식⁵⁾ 말한다. 이 지식이 진실의 탐구에 초점을 두면 역사의 과학성을 획득하게 된다. 그러나 트레벨린언처럼 역사의 서술 또는 전달에 무게 중심을 두고 교육적 기능에 초점을 두면 역사의 문학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역사의 본질은 이야기에 있다’고 하면서 ‘역사라는 예술은 항상 설화의 예술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⁶⁾ 그러므로 현대의 역사학은 ‘전문가들을 위한 과학’을

3) ‘설화의 역사적 연구’와 ‘역사학으로서 설화연구’는 구별된다. 앞의 연구는 설화의 역사적 변모 양상을 추적하는 ‘설화사’ 연구방법으로 인식되거나 한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역사학으로서 설화연구는 ‘설화의 역사’가 아니라 ‘설화에 의한 역사’ 곧 설화를 구체적인 사료와 전거로 삼아 연구하는 역사학이다. 일종의 구술사(oral history)에 해당된다. 구술사 연구와 신사학 또는 신문화사 연구는 서로 같은 지점에서 만날 수 있다. 그러므로 논제를 설화의 사료적 성격과 새 역사학으로서 설화연구’라고 하여 설화사료에 의한 역사적 연구를 표방하였다.

4) 역사를 history라고 하는 데 대한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 여성주의자들이 흔히 그런 주장을 한다. 그들은 역사가 남성사 곧 ‘그의(his)’ 이야기(story)에 치우쳐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 역사에는 남성사가 중심을 이룰 뿐 여성사는 소외되어 있다. 따라서 역사를 history가 아닌 herstory로 일컫자는 주장도 나왔다. 어느 쪽이든 주체만 다를 뿐 사실은 역사가 ‘사람의 이야기’라는 점에서 다를 바 없다.

5) R. G. Collingwood, *The Idea of History*(1946), 18-19쪽. 車河淳, 歷史의 本質과 認識(學研社, 1988), 7-12쪽에서 참조.

6) G. M. Trevelyan, ‘Clio Rediscovered’, in Fritz Stern, ed., *Varieties of History*, 2nd ed(1970), 234쪽. ь

추구한 나머지 설화성을 잃어버렸을 뿐 아니라 역사가의 주요 기능인 ‘이야기의 기술(art of narrative)’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비판되기까지 한다.

설화는 과거의 진실을 담고 있는 정보로서 ‘역사의 과학성’을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흥미로운 서술로 교육적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이야기로서 ‘역사의 문학성’까지 획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설화는 역사의 두 가지 학문적 성격을 조화롭게 수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역사의 양면적 의미도 두루 갖추고 있다. 헤겔이 자리매김한 것처럼 역사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나는 객관적인 의미로서 과거의 인간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실들을 뜻하는가 하면, 둘은 주관적인 의미로서 그러한 과거 사실에 관하여 지금 우리가 재구성해 놓은 서술이나 설명을 뜻한다.

우선 설화는 과거의 인간행위는 물론 인간과 관련된 세계에 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없다. 태초의 이야기에서부터 현실의 이야기까지, 나무꾼과 소금장사의 이야기에서부터 왕후장상의 이야기까지, 천상의 이야기에서 지옥의 이야기까지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과 세계관들을 두루 담고 있다. 그야말로 설화의 세계는 참으로 넓고도 깊다. 과거 사람들의 살림살이 이야기일 수도 있고 과거 사람들의 생각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

따라서 설화는 생활사 자료이기도 하고 사상사 자료이기도 하다. 어떤 사람들의 생활 일반에 관한 이야기가 생활사 자료 구실을 한다면 특정한 사람의 일생에 관한 이야기는 인물사 자료 구실을 한다. 특정한 문화 현상이나 예술 갈래에 관한 이야기는 문화사 자료 구실도 하고 예술사 자료 구실도 한다. 술거와 백결 선생에 관한 인물전설은 예술사 자료로 긴요하다. 특정 지역에 관한 이야기나 가족에 관한 이야기는 지역사와 가족사 자료가 된다. 그러므로 설화는 생활사, 사상사, 인물사, 문화사, 예술사, 가족사, 지역사 등 과거 인간행위의 모든 사실을 두루 갈무리하고 있는 객관적 의미의 역사라 할 수 있다.

둘째로 설화는 누군가에 의해서 과거 사실을 설명하는 이야기라는 점에서 주관적 역사이기도 하다. 설화는 여러 사람들에 의해 집단적으로 전승될 뿐 아니라 인

❖ 車河淳, 앞의 책, 220쪽에서 재인용.

간 세계에 관해서 어느 것이든 다루지 않는 것이 없다는 점에서 객관적이고 총체적인 역사이되, 설화의 실체는 한 이야기꾼이 듣는 사람을 의식하며 이야기할 때 비로소 생생하게 나투어진다는 점에서 주관적이고 개별적이다. 이야기된 설화의 실체로서 각편(version)에는 이미 이야기꾼 개인의 생각과 판단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내포되어 있게 마련이다. 다시 말하면 설화가 내포하고 있는 객관적 의미의 역사로서 과거 사실에 관한 이야기꾼들의 해석이 그때마다 설화를 새롭게 재구성해 놓는다는 것이다.

설화의 모든 각편은 이야기꾼의 서술 의도가 반영되어 재구성된 것이다. 왜냐하면 설화의 구연(performance)은 곧 설화의 합성(composition) 또는 재구성(reconstruction)을 두루 뜻하는 것일 정도로, 사실상 설화는 그때마다 재창조되어 각편으로서 제 모습을 드러내며 공간적으로 확산(transmission)되고 시간적으로 전승(tradition)되는 것이기 때문이다.⁷⁾ 설화가 구연되는 과정에서 설화의 내용 일부가 삭제되기도 하고 달라지기도 하며 새로운 내용이 덧붙태지는가 하면 설화의 의미가 달라지기도 한다. 이러한 변화는 이야기꾼 개인의 의도에 의한 것이기도 하지만 듣는 사람의 참견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 따라서 설화는 과거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하는 사람에 따라 그 때마다 재구성되어 과거 사실이 설명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역사 서술은 주관적 시각에서 과거 사실을 설명한다는 점에서 설화와 함께 가지 않을 수 없다.

고대사는 으레 신화로부터 시작한다고 할 정도로 신화는 고대사 서술의 가장 긴요한 사료이다.⁸⁾ 천지개벽 신화와 인류시조 신화도 그러려니와, 건국신화들은 고대사 서술의 출발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문헌사료가 부족한 고대사의 상당 부분은 전설을 전거로 서술된다. 신화와 전설을 전거로 쓰여진 고대사는 사실상 설화집이나 다름없다. 실제로 『삼국유사』와 같은 역사서는 고대 설화집이라

7) 임계해, 설화작품의 현장론적 분석(지식산업사, 1991). 12쪽 참조

8) 최남선, 조선의 신화와 설화(홍성사, 1983), 8쪽. “어느 국민의 역사든지 그 초두에 적혀 있는 사실은 죄다 신화요, 그렇지 않으면 신화로서 환골탈태(換骨奪胎)하여 나온 의장적(擬裝的) 사실이요, 아무리 진보한 방법으로 만든 역사라도 그 고대의 일은 재래의 신화에 합리적 해석을 붙인 것에 벗어날 것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신화를 제쳐놓고 인류의 최고 역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많은 설화들을 수록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여 역사서로서 결합이 있는 것은 아니다. 설화 자료가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삼국사기』보다 『삼국유사』가 오히려 해석의 여지가 많고 고대의 생활사와 문화사를 이해하는 데 더 긴요한 자료 구실을 하고 있다. 사마천의 『사기열전』도 인물전설을 주로 다룬 설화집으로 주목될 만큼 독특한 역사서 구실을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설화는 일반 사료와 같은 구실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설화는 일반사료와 구별되는 설화 사료로서 독자성이 있다. 가장 근본적인 특징은 문자로 기록된 문헌사료가 아니라 말로 전승되는 구전사료라는 점이다. 구전 사료라는 특징이 문헌사료와 다른 독자성을 다양하게 확보해 준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계급성과 유동성이다. 세간에서 널리 전승되는 설화야말로 민중이 주체가 되어 전승하는, 쓰여지지 않은 역사이자 밑으로부터 치받치는 역사라는 점에서 문헌사료나 물질사료와 구별된다. 문자나 물질로 고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지금 우리가 주체가 되어 다시 서술할 수 있는 사료이자 역사가 바로 설화와 같은 구전사료이자 구전역사이다.

역사학이 사료 속에 담겨 있는 인간의 과거 행위에 관한 의문을 해결하려는 ‘특별한 사고 형식’이라고 한다면,⁹⁾ 우리는 설화의 사료적 특징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삼국사기』나 『고려사』와 같은 문헌사료를 중심으로 역사연구를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해방되어야 설화의 사료적 특징이 새롭게 인식된다. 구전사료로서 설화의 특징은 가변성과 민중성, 전승성, 공감성, 확산성, 교정성, 다각성 등을 들 수 있다.¹⁰⁾ 사료적 특성을 온전하게 반영한 역사 연구는 사료의 성격에 따라 그 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설화의 사료적 특성을 먼저 포착해야 설화의 역사적 연구 방법을 제대로 모색할 수 있다.

9) R. G. Collingwood, *The Idea of History*(1946), 7쪽. 車河淳, 歷史의 本質과 認識學(研社, 1988), 16쪽에서 재인용.

10) 이필영 교수는 역사민속학회 제76차 연구발표회(대우재단 세미나실, 2001년 3월 10일)에서, 설화의 사료적 특성을 구비문학의 관점이 아닌 역사학적 용어와 체계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는 제의가 있었고 연구자도 그러한 제의에 동의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틀을 바꾸면 다음 장도 차례로 다 바꾸어야 하는 전면적 개작을 해야 하는 까닭에 좋은 제의를 받아들이지 못했다.

2. 설화의 사료적 특성과 역사 이해

구전 사료로서 설화의 첫째 성격은 가변성을 지닌다는 점이다. 문자로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구연될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게 마련이다. 달라지는 원인은 기억력의 불확실성과 이야기꾼의 의도에 있다. 아무리 기억력이 탁월해도 들은 설화를 고스란히 전달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야기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들을 때 자기 생각에 따라 들을 뿐 아니라 이야기할 때에도 이야기하는 의도에 따라 들은 이야기의 내용을 바꾸어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설화는 한 편의 설화로서 유형적 일치를 보이면서 이야기될 때마다 달라지는 각편으로서 독자적 개성을 가지게 마련이다.

구체적인 이야기판에서 이야기하는 사람과 이야기를 듣는 사람 사이에서 설화는 가변적으로 구연된다.¹¹⁾ 하는 사람에 따라, 듣는 사람에 따라, 그리고 이야기판의 상황에 따라 이야기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같은 사실이나 동일한 사건이라도 듣는 이들은 자신의 상황에 맞게 주체적으로 인식하고 이야기꾼은 듣는 이들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표현하기 때문이다. 이야기꾼의 해석 의도와 듣는 이들의 수용 태도에 따라 설화는 그때마다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설화 사료는 죽은 역사가 아니라 끊임없이 새롭게 해석되고 다른 모양으로 서술되는 살아있는 역사인 것이다.

사료로서 설화의 둘째 성격은 민중성을 지녔다는 점이다. 문자로 역사를 기록하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일들은 전통사회의 사대부들이나 가능한 것이다. 예사 사람들은 문자를 터득할 기회도 없었을 뿐 아니라 간신히 문자 해독 능력을 쌓았다더라도 문서나 문헌에 기록을 남길 처지가 못되었다. 예사 사람으로서 문서를 작성하고 문헌을 간행하는 일은 엄두도 내기 힘들었던 것이다. 따라서 민중들은 자신들이 겪고 생각한 내용들을 말로 이야기하거나 소리로 노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글의 주체가 소수 지배층에 속하는 사대부였다면 말의 주체는 다수 피지

11) 趙東一, 人物傳說의 意味와 機能 嶺南大學校出版部, 1979), 8쪽에서, 전설을 다루면서 “작품은 창작자와 수용자 사이에서 존재하는 가변적인 구조”라고 규정한 바 있다.

배층에 속하는 민중들이었다. 그러므로 설화를 포함한 구비전승의 주체는 상대적으로 민중이었다고 할 수 있고, 설화에는 민중의 역사의식이 주로 갈무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사료로서 설화의 셋째 성격은 전승성이다. 전승되지 않는 설화는 존재할 수 없다. 문헌사료는 한번의 기록으로 문헌이 존재하는 한 고정불변의 양식으로 시대를 뛰어넘어 지속되지만, 설화는 거듭 이야기되지 않으면 곧 잊혀질 뿐 아니라 다음 세대에 전달되지 않는다. 따라서 되풀이해서 이야기되지 않는 이야기는 진작 사라지게 마련이므로 구전설화에는 역사적 단절이 없다. 지금 이야기되는 특정 유형의 설화는 설화가 최초로 형성되어 구연될 당시부터 지금까지 줄곧 이야기되는 전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전승성을 통해 설화의 실체라 할 수 있는 각편이 구연 현장에서 나투어지고 풀 지워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설화는 오랜 동안 전승되면서 역사적으로 축적된 역사적 정보를 압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 실체이자 삶과 함께 늘 의식되어 온 역사라 할 수 있다. 옛날이야기는 옛날의 이야기이자 옛날에 관한 이야기일 뿐 아니라, 옛날이야기로서 일정한 유형으로 형성되어 전승되는 동안 변화발전 과정을 거쳐서 지금 여기서 마침내 나투어지는 것이므로 역사적 실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설화 각편은 저마다 한 유형의 설화로서 자기 역사 곧 설화의 유형적 일생사를 갈무리하고 있는 것은 물론, 기록자료처럼 단절된 역사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줄곧 역사와 함께 살아서 지속되는 역사로 존재하는 까닭이다.

사료로서 설화의 넷째 성격은 공감성이다. 문자 기록은 어느 개인이 금석이나 종이에 기록하여 남기면 그 금석과 종이가 망실되지 않는 한 그대로 남아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설화는 전승되지 않으면 어디에도 남아 있지 않다. 가상 공간이나 다름없는 인간의 기억력 속에 저장되어 있을 뿐 그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한 번 저장된 설화도 되살려 놓지 않으면 기억 속에서 사라진다. 따라서 끊임없이 구연하지 않으면 그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수 백년 동안 잊혀졌던 금석문이 뒤늦게 발견되어 사료 구실을 하는 것과 전연 다르다. 설화는 지속적으로 구연되어야 한다.

지속적으로 구연되는 힘이 바로 전승의 속성이자 전승력이다. 전승력은 비일상적 충격과 흥미를 통해 주어진다. 설화의 화소(motif)가 바로 이러한 전승력을 확보

하고 있다.¹²⁾ 설화의 흥미와 충격에는 이야기를 하고 듣는 사람들을 사로잡는 공감력이 있기 때문이다. 공감하지 않는 이야기는 전승력을 상실하게 마련이다. 이 공감력도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설화가 처음 형성된 시기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역사적 공백이 없어야 한다. 그런 뜻에서 오랜 역사를 지닌 설화는 어느 것이나 고전적 가치와 성격을 지니고 있다. 불후의 명작이 아니라면 지금까지 사람들의 공감을 사로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에 유행하는 시리즈 이야기들이 널리 구연되다가 몇 년 사이에 자취를 감추거나 아예 기억에서 사라져 버리는 것과 다르다. 지금 대중매체 또는 입으로 확산되는 시리즈 이야기나 우스개들은 당대적 공감에 머문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잊혀지거나 새로 유행되는 이야기가 나오면 밀려나게 마련이다. 따라서 체법 흥미로운 이야기들도 몇 년이 못 가서 자취를 감춘다. 그러나 옛날이야기는 세기를 넘어서 전승되는 힘이 있다. 심지어 수 천년 전의 신화적 이야기가 지금까지 생생하게 구연되기도 한다. 이른바 천지개벽을 노래하는 무속신화들은 천 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그러므로 설화를 금석에 새긴 기록과 같은 차원에서 구비문학(口碑文學)으로 일컫는 것이다.

그러나 금석문(金石文)은 내용의 공감력과 상관없이 매체의 고정성 때문에 애써 훼손하지 않으면 고대의 것이 사람들의 수용이 없어도 시간을 뛰어넘어 지속된다. 고대의 금석문이 최근에 발견되어 고대사 해석의 실마리 구실을 하는 것이 좋은 보기이다. 이와 달리 구비문학은 공감력에 의해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거듭 구연되며 지속된다는 점에서 고전적 가치를 충분히 지니고도 남음이 있다. 오랜 세월 동안 잊혀져 있다가 시간의 공백을 뛰어넘어 최근에 그 모습을 드러내거나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잔존해 있는 고대의 금석문 사료와 달리, 시간적 공백 없는 밀도 있는 지속성을 담보하며 역동적으로 생명력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 구비전승 사료로서 설화의 전승력이다.

사료로서 설화의 다섯째 성격은 확산성이다. 설화는 사람들에게 공감력을 얻어

12) Stith Thompson, *The Folktale*(The Dryden Press, 1946, First AMS edition, 1979), 415쪽에서, 화소(motif)는 전승력을 지니기 위해 무엇인가 비일상적이고 충격적인 내용을 지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구비전승되는 까닭에 전승력과 확산력을 함께 지닌다. 기록자료는 그 자체로 확산되지 않은 채 시간을 뛰어넘어 자체적으로 보존되고 있다가 특정 개인에 의해 발굴되어 비로소 학계에 소개되기 일췌이다. 그러나 설화는 역사적으로 전승되면서 지리적으로 전파된다. 공감력이 클수록 공간적으로 널리 전파된다. 따라서 어떤 설화들은 광포설화로 일컬어지며 그 기원과 함께 발생지가 문제된다. 어떤 설화들은 민족이나 국가 단위로 널리 확산되어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심지어 국경과 민족을 넘어서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있는 것조차 있다. 민담일수록 이러한 경향성이 더 높다. 상대적으로 더 흥미롭고 문학적 감동이 커서 공감력이 민족적 정서를 초월하기 때문이다.

사료로서 설화의 여섯째 성격으로 교정성을 들 수 있다.¹³⁾ 이는 가변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설화는 구연될 때마다 이야기하는 사람에 따라 변화되므로 자의적인 왜곡이 가능하다. 불확실한 기억력에 따라 자기도 모르게 이야기를 부정확하게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사학계에서는 설화의 불확실성과 이야기꾼의 개입을 들어 사료로서 증거능력을 의심한다. 그러므로 사학계에서는 설화를 1차 사료로 취급하지 않기 일췌이다. 문헌사료를 보조하는 2차 사료 정도로 다룬다.

그러나 이러한 가변성이야말로 사료로서 객관성을 유지하며 어느 개인에 의한 조작을 허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미 전승력과 확산력에 의해 많은 사람들이 설화의 본디 내용을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이야기는 기록자료와 달리 반드시 이야기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사이에서 구연되기 때문에 듣는 사람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이야기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정 이야기꾼이 설화를 부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야기판에 청중으로 참여하여 듣고 있는 사람이나, 이 설화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다른 이야기꾼이 바로잡게 마련이다. 특히 사실과 관련된 이야기일수록 이를 바로잡는 노력이 반드시 뒤따른다. 그러므로 사실로 여기는 전설의 경우는 사실 여부를 놓고 시비를 벌이면서 이야기된다. 다투면서 이야기되는 것이

13) 임재해, 앞의 책, 308쪽에서 설화의 자가교정력을 다룬 바 있다. “청중은 이야기꾼의 자의적인 왜곡이나 착각에 의한 오류를 집단적 전승력에 의해 교정하는 기회를 갖기 위해, 이야기꾼으로 나서서 다시 구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설화는 구연되는 까닭에 기록전승과 달리 연행현장에서 자가교정력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전설이라 하는 까닭도 이 때문이다.

설화는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꾼이 자유롭게 말할 수 있지만, 듣는 사람들이나 다른 이야기꾼들에 의해 항상 검증받고 수정받기 때문에 제 멋대로 빛나갈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는 듣는 이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뿐더러 다른 이야기꾼의 온전한 이야기에 의해 전승력을 잃게 된다. 다시 말하면 구연되는 현장에서는 물론, 이야기판을 벗어나서 전승되는 과정에서 미흡한 이야기는 더 자세하게 보완되고 사실과 다르게 왜곡된 이야기는 온전하게 복원된다. 한 마디로 설화는 구비전승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가교정력을 지니는 것이다.

사료로서 일곱째 성격은 다각성이다. 설화는 특정 사람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야기되지 않고 자유롭게 개방되어 이야기된다는 점에서 사료적 다각성을 확보한다. 특정 사건이나 문제, 인물 등에 대해서 한 유형의 설화만 전승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변이를 통해 다양한 변이유형과 각편이 병립한 채 전승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성격은 이야기가 단일하지 않고 여러 가지로 존재한다는 점에서 구연과정의 가변성과 연관되면서, 내용에 일치를 이루지 못하고 서로 다른 이야기들이 여러 갈래로 존재한다는 점에서 내용의 오류를 스스로 바로잡는다고 하는 교정성과 맞서 있는 특성이다.

교정성은 획일성과 다르다. 설화의 다양성을 부정하는 것이 교정성이 아니다. 명백하게 잘못된 부분만 바로잡는 것이 교정성이다. 이를테면 이야기꾼이 자기 속셈 때문에 부당하게 이야기를 왜곡시키면 공감력이 떨어져서 전승력을 확보하지 못한다. 듣는 이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비록 현장에서는 잠자코 듣더라도 자의적으로 왜곡된 이야기로 판단되면 같은 이야기를 다시 하지 않으므로 사실상 왜곡된 이야기는 더 이상 전승되지 않는다. 사소한 실수나 기억력의 문제로 부정확한 부분은 즉각 교정되지만, 이처럼 의도적인 왜곡은 전승력을 잃게 되어 사료로서 생명력을 부지할 수 없다. 교정성은 이야기의 오류를 바로잡을 뿐 아니라, 심각하게 왜곡된 억지 이야기는 그 전승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셈이다. 그것은 교정지에서 왜곡된 내용을 삭제 명령 내리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서로 다른 처지와 다양한 시각은 인정한다. 일정한 사건이나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처지에 따라 서로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¹⁴⁾ 이런 사람

들끼리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한다. 사회적 처지와 역사적 경험이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같은 사실에 대해 필연적으로 서로 다른 해석이 가능하고 또 그에 따른 다양한 해석이 요청되기도 한다. 설화를 전승하는 주체들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이러한 필요성과 상관없이 저마다 다르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자연히 전승과정에서 변이유형이 생겨나기도 하며 내용에 차이가 나는 각편들이 있게 마련이다. 변이형들이 설득력을 얻고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면 다양한 내용의 설화들이 제각기 전승력을 획득하고 널리 확산되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설화의 다양성은 역사 이해의 장애가 아니라 역사의 가능성을 다각적으로 추론하고 역사의 해석을 풍부하게 하는 자산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설화를 사료로 삼아 역사 연구를 하게 되면 역사학은 새로운 비약을 할 수 있다.

3. 설화 사료의 역사적 해석과 방법

사료로서 설화가 지닌 여러 가지 속성들은 문헌사료나 물질사료 등과 다르기 때문에 독자적인 가치를 지닌다. 그 속성과 가치가 독자적인 만큼 해석도 그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해석의 방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료의 과학적 수집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구비전승되는 자료의 속성상 현장에서 전승되는 설화를 생생하게 만나려면 직접 현지조사를 해야 할 뿐 아니라, 조사 결과를 정확하게 채록하고 체계적으로 보고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구비문학으로서 설화 연구가 그렇듯이, 설화를 사료로 하는 역사연구도 현지조사와 연구 작업이 함께 가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속성인 가변적인 사료로서 설화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모든 설화는 가변적으로 연행되고 전승된다는 사실을 의식해야 한다. 고정적인 사료인 문헌사료와 물질사료는 정사(正史)인가 위사(僞史)인가, 또는 원형인가 조작된 것인가 하

14) 임재해, '전설의 역사적 성격과 그 연구- 근암공 설화의 경우', 韓國民俗學 15(民俗學會, 1982), 192-198쪽에, 서로 다른 처지에 있는 이야기꾼이 같은 이야기를 어떻게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것이 어떤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었다.

는 문제가 사료 해석 이전에 비판적 검증을 거쳐야 할 문제이다. 위사라고 하더라도 사료로서 제쳐놓는 것이 아니라 누가 왜 조작했는가, 어떻게 조작되었는가 하는 문제는 그 자체로 역사연구의 중요한 과제이다. 더군다나 설화는 어차피 각편으로 구연될 때마다 제각각이므로 어느 한 자료만을 대상으로 역사적 해석을 시도하는 것은 무리이다. 어느 것도 완벽하거나 원형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구연의 가변성을 통해 다양하게 존재하는 각편들을 두루 수렴해서 그 같고 다른 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대조한 다음 비로소 역사적 해석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그러자면 이미 수집된 다양한 자료들을 확충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역사적 사실과 연관된 현장을 찾아가서 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대조 결과 역사적 사실에 관해 서로 다르게 이야기되는 경우, 그것이 역사적 변모인가, 지역적 차이인가, 계급적 성격인가, 이야기꾼 개인의 견해인가 하는 것을 다각적으로 추적해 보아야 한다. 그러자면 해당 설화자료를 구연한 이야기꾼에 관한 정보는 물론, 자세한 이야기판의 구연상황과 해당 이야기가 전승되는 공동체의 현상상황을 두루 고려해야 한다. 역사적 선후관계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같은 유형의 문헌설화나 기록자료를 확보하여 전거로 삼을 필요도 있다. 그러므로 설화의 역사적 해석은 현지조사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며 여러 가지 다양한 설화 자료들을 다각적으로 동원하여 현장론적 상황 속에서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속성인 민중성은 설화 사료의 계급성을 나타낸다. 같은 사실이라도 이를 체험하고 인식하는 주체에 따라 서로 다르게 포착될 수 있다. 지배층이 한문으로 기록한 문헌사료에서는 으레 지배층의 시각이 반영된다면, 세간에서 말로 전승되는 구전사료에는 피지배층의 시각이 담겨 있게 마련이다.¹⁵⁾ 우리 역사학이 지배층 중심의 영웅사관에 의존해 왔던 한계를 극복하는 데에도 민중의 사료인 구전사료가 긴요하다. 설화가 민중들의 세계관과 역사의식을 두루 갈무리하고 있는 사료라면, 관변층 기록과 지배층 사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민중사료라는 관점에서 설화를 주목하고 해석해야 한다.

그러자면 지배층의 문헌사료와 충분히 대조되어야 할 뿐 아니라, 문헌사료를

15) 임재해, ‘전설에 나타난 광망우당의 영웅다움과 이인다움’, 민족설화의 논리와 의식(지식산업사, 1992), 243-244쪽 참조.

기준으로 구전사료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 서로 다른 점이 있다면 역사 이해의 계층적 차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의도적으로 지배층과 다른 피지배층의 시각에서 역사 해석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문헌사료에는 문무왕과 세종이 대단한 업적을 남긴 훌륭한 대왕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구전사료인 설화에서는 문무보다 ‘김부대왕’, 세종보다 ‘숙종대왕’이 훌륭한 왕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전쟁에 의한 국토확장보다 국리민복을 먼저 생각하고 백성의 처지에서 민생을 돌보는 왕이 민중의식 속에서는 대왕의 상으로 굳어져 있다.¹⁶⁾ 설화가 아니고서는 이러한 역사의식을 포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역사교과서가 가르치는 역사지식의 고정관념을 깨뜨리기 어렵다.

설화를 통해 드러난 민중의 역사의식은 상당히 주체적이며 비판적이다. 특히 역사적 고난을 당했던 시기에 그러한 의식의 차이가 뚜렷하다. 임란때 이여송으로 상징되는 명나라 원병의 횡포에 대하여 지배층에 의하여 기록된 관변측 문헌사료가 그 공헌을 높이 받드는 쪽이라면, 민중은 이여송이 저지른 각종 횡포만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한 횡포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명산의 혈을 자르는 이야기이다.¹⁷⁾

흥미로운 것은 주한미군들도 우리 명산의 혈을 잘랐다는 이야기가 전승된다는¹⁸⁾ 사실이다. 그것은 민중들이 주한미군의 횡포를 인식하고 철수를 기대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지배층이 외세에 의존하여 기득권을 유지하려 드는 반면에, 민중들은 외침을 주체적으로 극복하고 외세를 배격하려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설화의 민중성은 역사적 사건을 계급적 시각에서 대조적으로 포착하여 역사해석의 균형감각을 이루는 데 아주 긴요한 구실을 한다. 자연히 설화 사료는 역사가로 하여금 민중사관에 입각하여 역사해석을 하도록 만든다.

셋째 속성인 전승성은 역사적 해석의 변모 양상을 포착하는 데 매우 긴요하다. 같은 사실이나 사건에 대한 설화가 역사적으로 축적되고 변모되어 지금에 이르러

16) 임재해, 설화작품의 현장론적 분석, 100-102쪽에 이 문제를 자세하게 다루었다.

17) 임재해, ‘이여송 전설에 갈무리된 민중의 역사인식’, 민족설화의 논리와 의식(지식산업사, 1992), 223-234쪽 참조

18) 임철호, 임진록연구(정음사, 1986), 273쪽.

한 편의 설화 각편으로 자료화된다. 따라서 구비전승 자료가 다 그렇듯이 설화 또한 형성 시기나 특정 시기의 모습을 단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승과정에서 형성 발전 변모되어 지금에 이른 것이다. 그러므로 한 편의 설화 자료는 역사적 사실을 담고 있으면서, 그 역사적 사실에 대한 해석을 그때마다 다르게 해왔다고 할 수 있다.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에 관해서 계급에 따라서도 그렇지만 시대에 따라서도 다른 해석과 의미부여가 이루어진다. 실제로 역사는 그 시대상황에 입각해서 다시 쓰여진다. 그러므로 ‘역사적 사실은 재현되지 않지만 이 시기에 해석된 역사는 오히려 거듭 재현된다고 할 수 있다.’¹⁹⁾

결국 전승적 실체인 설화는 사료의 역사이자 사료해석의 역사이기도 하다. 그 때마다 다시 이야기되며 전승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같은 유형의 설화들을 그 구연 시기별로 선후관계를 설정하고 선후자료의 변화방향을 주목하면 설화를 전승하는 사람들의 역사의식을 해석할 수 있다. 역사 발전에 따라 새로운 역사를 상상하고 있는 것이다. 비록 설화 자체의 연대기적(chronical) 역사는 불확실 하더라도 역사적 선후관계는 밝힐 수 있다. 같은 유형의 설화들을 상호 대조하여 역사재구적인 방법으로 해석하면 위상적(topological) 역사를 서술하고 설화의 발전 단계를 더불어 포착할 수 있다. 설화의 발전단계가 곧 역사 해석의 발전단계이기도 하다.

이들테면 호국룡 설화는 초기에 문무왕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라 용이 되어 득천할 수 있었으나, 점차 왕의 이름도 김부로 바뀌고 왕의 의지보다는 민중들의 지지에 의해 용으로 변신하여 득천하게 되었다는 방향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따라서 설화를 통해 문무왕이 호국룡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있다는 것을 알아내는 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대단한 왕이라도 민중의 지지 없이 비약이 불가능하다는 민중의식의 성장을 포착하는 데까지 나아가야²⁰⁾ 온전한 역사해석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설화는 당시 왕의 행적을 정확하게 증언하는 사료라고 믿기 어렵지만 설화를 전승하는 집단의 사상이나 철학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에는 유용한 자료가

19) 杜維運 著, 權重達 譯, 歷史學研究方法論(一潮閣, 1984), 219쪽.

20) 임재해, 설화작품의 현장론적 분석, 207-208쪽 참조.

될 수 있다.²¹⁾ 그러므로 설화의 역사적 해석은 역사적 사실의 발견에 머무르지 않고 발견된 사실에 대한 ‘의식의 역사’ 곧 ‘해석의 역사’까지 주목해야 제격이다. 설화를 한갓 사료로 보아서 역사적 사실을 검증하려는 실증적 역사연구에서 나아가, 설화를 전승하는 민중집단의 역사의식을 해명하고 역사해석의 발전 양상을 포착하려는 해석학적 역사연구를 지향해야 한다.

넷째 속성인 설화의 공감성은 문헌사료에 비하여 객관적 사료로 인정받게 하는 특성을 말한다. 일정한 공적 검증을 거치지 않은 다른 사료들은 기록자 개인의 것에 머물 수 있다. 기록자 개인의 정직성에 의존하는 것은 그만큼 위험하다. 그러나 설화는 어느 것이든 이미 이야기꾼 자신에 의하여 공감되고 수용된 것이다. 전승 과정에서 역사적 검증을 거치고 긍정적으로 수용된 것이므로 지금까지 전승될 수 있다. 그러므로 비록 한 사람에 의해 구연된 자료라 하더라도 공동작으로서 설화 형성의 집단성과 함께 역사적 공감대를 지속해 온 사료로서 가치를 인정할 만하다.

설화가 사료로서 공감성을 가지는 데에는 문학적 형상화가 중요한 구실을 한다. 용의주도한 줄거리의 구성이나 감동적인 묘사가 이야기로서 흥미를 높여준다. 역사는 사실의 기술이자 설명이다. 그 설명이 효과적일 때 설득력도 지니고 공감력도 높인다. 설화는 줄거리라고 하는 일정한 인과논리에 의해 서술되는 문학적 이야기(story)인 까닭에 역사의 설명을 완벽하게 한다. 이에 따라 설화 자료 내부가 유기적 구성을 이루는 가운데 서술의 문학적성까지 제대로 갖춘 한 편의 작품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문학적 허구성이 높고 구조적 작위가 이루어진 탓에 실증성이 떨어지며 역사적 사실과 일정한 거리를 두게 된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역사적 사실이 설화로 문학적성을 획득하는 과정에 무엇이 첨삭되고 어떤 극적 구성을 거치게 되었는가 하는 점을 분석해서 허구적으로 창작된 부분을 건어내야 한다. 이를테면 역사의 현장을 한 장의 그림으로 그렸을 때 회화성이 높을수록 그림은 아름답고 감동적일지 몰라도 현장의 상황을 고스란히 증거하는 역사 자료로

21) Jan Vansina, by Translated H. M. Wright, *Oral Tradition : A Study in Historical Methodology*(Penguin Books, 1965), 11쪽에 구비전승 자료가 실제적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지만 특정 주민들의 사상과 철학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에는 필수적인 자료라고 하였다.

서는 문제가 많다. 회화의 예술성을 높이려면 그리고자 하는 대상을 어느 정도 조정하게 될 뿐 아니라 구도에 맞게 재배치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현장의 다른 자료들을 근거로 이 그림을 재해석하지 않을 수 없다. 설화의 경우에도 사실을 증언하는 데 비교적 충실한 전설보다 공감성이 높고 흥미진진한 민담이 상대적으로 문학적 작위가 심하여 실제 사실을 상징적으로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한 편의 완벽한 사료로서 설화를 다루기보다 이를 해체하여 역사적 사실과 관련된 부분만 사료로 취할 필요가 있다. 일종의 해체비평이 설화 사료의 역사적 해석에 특히 긴요한 방법이라 하겠다.

다섯째 속성인 확산성은 지리적 분포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설화는 전승되면서 공감되는 까닭에 이웃 지역으로 널리 전파되게 마련이다. 신화와 민담은 특히 확산성이 높고 전설은 상대적으로 지역성이 강하다. 그러나 전설도 지역적 범주를 벗어나서 전국적인 분포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런 전설을 특히 광포전설이라고 한다.²²⁾ 광포전설처럼 같은 유형의 설화가 널리 전파되는 경우 지역 상황에 따라 변이를 일으킨다. 때로는 지역의 역사적 사건이 설화의 변이를 자극하게 된다. 설화의 지역적 변이 내용을 통해서 지역의 역사를 추적할 수 있다. 역사지리학적 방법이 요구된다.

그러나 같은 유형의 설화가 전파에 의하지 않고도 독립적으로 생성 전승되는 경우가 있다. 전쟁이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역사적 경험도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국가 차원의 역사와 민족 단위의 문화에 관한 설화들은 유형적 동질성을 지니면서도 지역적 특수성을 별도로 지니고 있다. 이들 설화는 원형과 변이형이라는 전파론적 논리에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문화생태학적 관점에서 해석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같은 전쟁경험이라도 지역마다 다르고 같은 전통문화라 하더라도 지역적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확산성에 따른 설화의 분포는 역사지리학적 방법과 함께 지역의 맥락에서 지방사 연구 방법론에 따라 해석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속성인 교정성은 사료로서 객관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엉뚱한 왜곡을 막

22) 崔來沃, 韓國口碑傳說의 研究(一潮閣, 1981), 31쪽에서 廣布傳說이라 일컬었다.

이주는 구실을 한다. 따라서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된다고 판단되면 듣는 이들에 의해 현장에서 바로 이의가 제기된다. 심지어 듣는 사람이 나서서 이야기꾼의 이야기를 다시 하기까지 한다. 사실을 근거로 하는 전설일수록 이러한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맞거나 틀리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 좌중에서 사실을 두고 티격태격하는 의견들을 다 수렴할 필요가 있다. 교정 결과보다 교정 과정의 논쟁이 더 중요하다. 교정과정의 역사적 논쟁을 통해 역사 해석의 지평을 넓힐 수 있다.

과거에는 위사가 사료로서 배격되었으나 지금은 왜곡된 사료까지 역사연구의 자료로 끌어들인다. 왜 사실을 그렇게 왜곡했는가 하는 사실도 역사 연구에 긴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굳이 교정된 설화자료만을 한정해서 다룰 필요가 없다. 다소 사실에서 어긋났다고 판단되는, 교정되기 이전의 자료도 사료로서 주목해야 한다. 교정은 토론에 의한 합의의 결과이다. 사실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합의된 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가능하다면 합의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토론 내용도 참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쉽게 왜곡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며 왜 그러한 왜곡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일정한 방향으로 교정될 수밖에 없는가 하는 문제를 검토하면 역사 해석의 묘미를 발견할 수 있다.

일곱째 속성인 다각성은 해석의 문제이자 적합성의 문제이다. 설화는 전승되면서 확산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처지에 따라 해석이 서로 다르고 지역의 생태학적 환경에 따라 적합성이 떨어져서 다양한 변이를 보인다. 사회적 처지가 역사 해석과 연관되어 설화를 변화시킨다면 서로 다른 생태학적 환경은 문화적 적합성에 따라 설화를 변화시킨다. 자연히 동일한 사실에 대해서 다른 해석의 설화를 전승하거나, 같은 유형의 설화가 다른 문화적 배경 속에서 적절히 변화를 일으킨다.

역사 연구에서 사실의 진위 문제보다 해석의 문제가 더 중요할 수 있다. 일정한 사실을 서로 어떻게 달리 해석하는가 하는 문제를 포착하는 데 설화의 다각적 속성이 긴요하다.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하는 사실보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문제를 논쟁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다각성은 문제의식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만은 아니다. 같은 사실도 현장의 환경이 다르면 생태학적으로 이야기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설화의 다각성은 이야기 전승집단의 사회적

처지와 이야기가 전승되는 현장의 문화생태학적 환경을 추론하는 데 함께 이바지되어야 한다.

특히 전설의 경우 결과적으로 나타난 증거물로부터 역사적 사실을 재구성한 것이 많다. 따라서 결과는 같으나 원인은 제각기 다른 전설이 성립된다. 같은 증거물에 관해 몇 가지 민간어원설이 있는 것도 결과로부터 원인을 추론한 까닭이다. 이들 어원설은 동일한 증거물에 입각하여 같은 결과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모두들 그럴듯한 원인으로 인식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결과를 전제로 추론된 원인이라는 점에서 그럴 듯하다고 하여 전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도 없지만 서로 어긋난다고 하여 모두 배격할 수도 없다. 실제로도 무수한 요인들이 어떤 결과를 필연적으로 가져온다는²³⁾ 사실을 고려하면, 동일 사실에 관하여 다각적으로 이야기되는 설화들을 선택적으로 주목할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아우를 필요가 있다. 이제 기원론이나 역사적 원인론은 사지선다형과 같은 단일 연원설로 설명하는 것보다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되었을 가능성을 존중하여 다각적인 설명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4. 구전사료로서 구비전승과 설화의 위상

설화는 다른 사료들과 구별되는 구전사료라는 점에서 역사연구 자료로서 독자성을 지닌다. 설화의 사료적 속성이 특수하기 때문에 역사 연구에 장애가 되기도 하지만, 그 속성을 제대로 포착하고 그에 따라 적절한 해석이 가능하다면 역사 연구를 풍부하게 하는 중요한 영역이 된다. 이러한 가능성을 포착한 미국 역사학계에서는 1970년대 초부터 구전역사학회(Oral History Association)를²⁴⁾ 조직하여 구전

23) 梁秉祐, 歷史의 方法(民音社, 1988), 129쪽. “실제로는 무수한 요인들이 그 결과를 ‘필연적’으로 가져온다. 그러나 그 가능성의 관점은 또한 역사 속에서 결단하고 행동을 취하는 인간의 관점이기도 하다. 그 관점에서 현실을 - ‘목적’으로부터 - 재구성하는 것처럼, 우리는 현실을 - ‘결과’로부터 - 재구성한다. 바로 그것이 베버가 말하는 ‘현실의 역사적 成形’인 것이다.”

사료들의 조사방법과 연구방법에 관한 논의를 진전시키고 있다. 따라서 구전사료로서 설화의 위상도 포착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자료의 과학성도 획득할 필요가 있다.

구전사료로 이용할 수 있는 자료는 여러 갈래로 존재한다. 조사자가 현지에서 주민들과 면담을 통해서 얻어들은 모든 자료들은 구술정보(oral information)가 된다. 구술정보는 질문에 대한 단순한 대답과 진술에서부터 담론, 구비전승물, 목격담, 풍문, 설화작품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현지조사과정에서 주민들과 면담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형식의 구술정보를 습득하게 마련이다. 구술정보 가운데에서도 역사성을 지니며 관용적으로 굳어져서 공동으로 전승되는 자료들을 특히 구비전승(oral traditions)이라 한다. 구비전승은 일정한 형식으로 관용화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 자체로 전승력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구비전승은 구술정보 자료가 되 어는 개인의 지식에 의한 정보가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공동으로 전승해 온 집단적 지식에 의한 역사적 정보라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구비전승의 역사적 연구 방법을 다룬 반지나(Jan Vansina)는 구술 자료 또는 구술 증언을 목격담(eyewitness)과 구비전승, 풍문(rumour) 등 세 가지로 나눈다. 목격담은 간접적인 진술이 아니며 듣고 말하는 전승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전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역사적 증거력은 갖추고 있어 사료로 간주된다. 풍문은 비록 구비전승처럼 이 사람에서 저 사람으로 이야기되어 전파되긴 했지만 그 이야기가 과거 사실과 연관되어 있지 않은 당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구비전승에서 배제된다. 따라서 풍문은 일종의 뉴스이긴 해도 역사연구의 사료는 될 수 없다는 것이다.²⁴⁾ 그러므로 구술정보라고 해서 모두 사료가 되거나 구비전승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구술정보 가운데에도 구술사료가 있다. 어떤 개인이 역사적 사건을 체험하고 이를 구술한 자료는 구술사료라 할 수 있다. 체험담이나 목격담이 이에 해당된다. 궁녀생활을 한 사람을 대상으로 궁중생활사를 조사하기 위해 면담해서 얻은 자료

24) 이 학회에서 내는 학회지 *The Oral History Review*는 매년 두 차례 간행되며 일년에 소식지 *Oral history Association Newsletter*를 네 차례 간행하고 있다.

25) Jan Vansina, by Translated H. M. 앞의 책, 19-20쪽.

들은 구술정보이자 구술사료이다. 3.1운동에 직접 참여하여 만세를 부른 사람의 진술도 구술정보이면서 역사적 가치가 있으므로 구술사료가 된다. 구비전승 가운데 구술사료 노릇을 하는 것은 일정한 전승물로 유형화되어 있기 일췌이다. 이를테면 ‘허씨 터전에 안씨 문전에 류씨 배판(杯盤)’이라는 관용구는 하회마을의 성씨별 세거과정을 설명해 주는 관용구이다. 이러한 관용구는 구비전승에 속하는 구술사료이다. 일정한 양식적 틀을 이루고 있다. ‘성주의 본이 어드메나 경상도 안동 땅 제비원이 본일래라’하는 성주풀이의 일부도 성주신앙의 메카를 알려주는 것이 되, ‘무가’의 양식 속에 갈무리된 사료라는 점에서 구비전승되는 역사에 해당된다.

구술정보가 잃어버린 역사 유적을 발견하는 데 훌륭한 자료가 되기도 한다. 내가 안동시 옥동에서 구비문화 조사를 하는 중에 ‘하이마’의 지명유래를 두 가지 수집하였다. 한 지명유래는 ‘하이마’ 전설이라고 할 정도로 이야기가 길었다. 하이마 사람이 부모의 묘를 쓰기 위해 풍수가 잡아준 묘지에 광증을 파는데 얼마 파지 않아서 큰 바위가 나타났다. 상주는 풍수가 시키는 대로 그 바위 위에다 하관을 하려 하였으나 어른들이 광증이 알아서 못 쓴다고 기어코 바위를 파내라고 하였다. 상두꾼들이 그 바위를 들어내려고 하자 바위 밑에서 학이 한 마리 날아갔다. 그래서 그 마을을 ‘학의 마을’이라고 하여 ‘학의 마’라고 하다가 ‘하이마’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이야기는 단순한 지명 설명이었다. ‘하이마’는 아랫 임하(臨河)라는 뜻의 ‘하임하(下臨河)’라는 것이었다. 안동시 동남쪽인 낙동강 위쪽에 ‘임하’가 있으므로 시의 서쪽에 낙동강을 끼고 있는 하이마는 바로 아래 임하라는 뜻으로 ‘하임하’ 곧 ‘하이마’라 일렀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안동의 지방지인 『영가지(永嘉志)』에는 임하사가 있고 거기에는 전탑(博塔)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지금의 임하리와 임하면 일대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따라서 안동의 동쪽에 있는 임하면 일대에서 임하사와 전탑을 열심히 찾아다니는 이진구씨에게 안동부의 서쪽 8리에 있다는 영가지의 기록을 상기시키며 안동시 서쪽에 자리하고 있는 ‘하임하’의 지명을 가르쳐 주고 그때 들은 하임하의 열두 골짜기 가운데 절골이 있다는 사실까지 알려주었다. 그 결과 마침내 현장을 발견하고 임하사의 전탑지를 발굴할 수 있게 되었는데,²⁶⁾ 지명유래에 관한 정보가 결정적인 구실을 하였다.

구비전승 자료는 역사로서 사실을 진술하는 사료 구실을 할 뿐 아니라 하나의 작품으로서 숨은 뜻을 갈무리하여 창조적으로 표현하는 문학 구실을 하기도 한다. 따라서 구비전승을 ‘구비전승의 역사’와 ‘구비전승의 문학’으로 갈래를 나누기도 한다.²⁷⁾ 구비전승의 문학, 곧 구비문학은 구비전승으로 존재하는 문학이어야 한다. 구비전승의 역사는 역사적 사실을 담고 있는 구비전승물 전반을 이야기하되, 구비문학은 문학적 형상성을 갖춘 것에 한정된다. 설화는 그러한 구비문학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양식이며 특히 전설이나 유래담은 구비전승의 역사와 겹친다고 할 정도로 역사성도 짙다. 따라서 전설이나 유래담 가운데에는 문학적 형상성이 떨어지면서 단순히 증거물의 내력을 설명하는 데 머무는 것도 있다. 전설에 비해 민담은 문학적 형상성이 높아서 1차 사료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처럼 설화도 갈래에 따라 서로 다른 사료적 특징을 지니므로 그 성격을 분명히 포착할 필요가 있다.

신화는 천지창조나 인류시조의 출현, 건국시조나 성씨시조, 무조신이나 당신의 좌정 등 태초의 시작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따라서 엘리야데는 신화를 신성한 시작의 역사라고 정의하기까지 했다. 그러므로 신화는 우주사와 지구사, 민족사, 국가사 등 거시적 역사에 관한 정보 또는 역사인식을 담고 있는 사료라 할 수 있다. 우주와 인간에 대한 세계관의 역사를 반영하고 있어서 사상사 자료로도 주목될 만하다. 전설은 신화에 비해서 한층 구체적이다. 한 인물이나 구체적인 사물, 특정 지역, 풍속 등의 유래를 설명한다. 따라서 인물사, 지역사, 풍속사 자료로 아주 긴요하다. 하회탈을 깬 허도령 전설은 하회탈과 탈춤의 역사적 연원을 추적할 수 있게 하고, 입향시조인 전서공 류중혜의 하회마을 정착 전설은 풍산류씨들의 정착사를 잘 설명해 준다.²⁸⁾ 홍수설화나 아기장수 설화 등 공포전설은 지역성을 넘어서기도 하지만,²⁹⁾ 일반적으로 지역전설은 마을사나 지역사를 이해하는 데 아주 기능적인 자료이다.

26) 任世權, 臨河寺博塔址(安東大學博物館, 1988)는 그 결과로 나온 발굴보고서이다.

27) Richard M. Dorson, *Folklore and Fakelore*(Harvard University Press, 1976), 135-136쪽에서는 Oral traditions의 영역을 Oral traditional literature와 Oral traditional history로 구분하고 있다.

28) 임재해, 민속마을 하회여행(밀알, 1994), 80-93쪽에 이 문제를 자세하게 다루었다.

29) 崔來沃, 韓國口碑傳說的 研究, 130-211쪽에서, 이들 전설의 분포와 의미를 자세하게 분석하였다.

민담은 구체성이 없다. 특정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사람들의 생활양식과 사고방식들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지역성을 넘어서되 신화처럼 원초적이지 않고 옛날사람들의 일상생활을 다루되 전설처럼 구체적이지 않다. 신화나 전설에는 영웅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상대적으로 민담에는 예사사람들이 많이 등장한다. 성별로 보면 여성에 관한 이야기도 상대적으로 우세하다. 따라서 민중과 여성의 생활을 이해하는 데 적합하다. 그러므로 민담은 신화와 전설에 비해 생활사, 민중사, 여성사, 사회사 등을 연구하는 사료로 적절하다.

구술정보의 양식이나 갈래를 따지면 이렇게 나뉘어지나, 이야기를 하는 사람 곧 이야기꾼과 이야기 내용의 관계를 따지면 생애사(life history)와 생애담(life story)으로 나뉘어지기도 한다. 생애사가 조사자의 질문에 답하며 듣는이의 의도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형식으로서 수동적 방법에 의해 진술된 연대기적 이야기라고 한다면, 생애담은 자신의 생애를 재구성된 이야기의 형식으로 자동기술적 방법에 따라 진술된 서사적 이야기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생애사에서 구술이 조사자에 의해 이끌어진다면, 생애담에서 구술은 이야기꾼이 주도한다.³⁰⁾ 생애사가 역사로서 ‘찾아내는 것(to find)’이라면 생애담은 이야기로서 ‘만들어내는 것(to make)’이다.³¹⁾ 따라서 허구적으로 지어낸 생애담은 사료로서 한계가 있다. 생애담의 역사적 연구를 위해서는 생애사 조사가 별도로 진행되고 생애사 자료와 함께 생애담이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설화를 사료로 한 역사적 연구도 구술정보의 다양한 갈래들과 더불어 해석될 때 설득력을 획득할 수 있다.

5. 설화사료의 과학성 확보와 현지조사 작업

구전사료는 단순한 구술정보에서 일정한 양식의 구비전승, 그리고 문학작품으

30) 천혜숙, ‘여성생애담의 구술사례와 그 의미 분석’, *口碑文學研究* 4(한국구비문학회, 1997), 74쪽 참조

31) Jelf Todd Titton, "The Life Story", in *Journal of Folklore* 93(1980), 278쪽. 천혜숙, 앞의 글, 같은 곳에서 참조.

로 형상화된 구비문학 자료까지 모두 대상으로 한다. 만일 이러한 구전사료가 없고 문헌사료만 있다면 우리 역사의 전모를 제대로 포착할 수 없다. 필요한 문헌기록이 제대로 남아 있지 않은 절대 사료의 부족은 물론, 기록으로 남아 있는 문헌조차 지배층 중심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이다. 기록자료가 거의 없는 마을사와 같은 지역사 자료는 전적으로 구전사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문헌의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에 나가보면 현장사정과 전혀 맞지 않는 불확실성과 부정확성의 한계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설화는 지역사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는 가장 비중 높은 사료 구실을 한다.³²⁾

물질사료도 생생한 유적이나 유물들이라고 하는 실물 자료라는 점에서 가장 정확하고 가장 구체적이다. 그러나 실물 자료는 고분 발굴이나 금석 자료 외에는 거의 남아 있지 않을뿐더러, 남아 있는 유적과 유물들도 누구에 의해서 언제 왜 만 들어지고 어떻게 쓰여졌으며 문화적으로 어떤 구실을 했는가 하는 것은 문헌기록이나 전설과 같은 구전사료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어떤 사료든 사료들끼리 상호보증을 통해서 객관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구전사료라고 해서 예외일 수 없다. 설화와 같은 구전사료들도 언제 누구에 의해 형성되고 전승되었는가 하는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증거력이나 역사적 해석에 상당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구전사료의 역사적 증거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문헌사료를 동원해서 연대기적 검증을 받고 물질사료를 통해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오로지 설화만을 사료로 삼는 것은 오로지 문헌이나 물질만 사료로 삼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계가 있다. 모든 사료는 그 정확성을 따지는 사료비판이 필요한 것처럼 설화도 사료로 이용할 때에는 적절한 사료비판이 필요하다.

모든 사료는 의심의 대상이다. 있었던 그대로의 사실들을 고스란히 갈무리하고 있는 사료는 없기 때문이다. 객관성도 의문스러울 뿐 아니라 완벽성도 떨어지게 마련이다. 다시 말하면 사료는 과거 사실을 잘못 기술한 것은 물론 의도적으로 왜

32) W. Edward Orser, 'Toward a New Local History : The Possibilities and Pitfalls of Personal Narrative', *The Oral History Review* Vol. 16, No. 1(Oral History association, spring, 1988), 111-118쪽에서 새로운 지역사 연구를 위해 설화의 가능성과 한계를 검토하였다.

곡한 것까지 있다는 것이다. 어느 것이든 오류와 왜곡, 허위와 편견, 과장과 축소가 뒤섞여 있다. 설화라고 하여 예외일 수 없다. 또 설화라고 하여 모두 같은 자질을 지니는 것이 아니다. 설화가 어떻게 조사되고 어떻게 채록되었는가 하는 데 따라 그 과학성이 결정된다. 그러므로 문헌사료와 물질사료 등 다른 사료들과 서로 보완적 관계를 통해 사료로서 객관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현지조사에 의한 설화를 통해 사료로서 과학성을 높일 수 있다.³³⁾ 서로 다른 사료들끼리 철저하게 대조하는 작업이야말로 사료 비판의 기본이자 역사연구를 제대로 수행하는 가장 중요한 절차이다.³⁴⁾

설화에 의한 역사적 연구에서 문제되는 것은 다른 사료들과 상호보증을 맺는 사료간의 관련성이 아니다.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사료간의 연관성을 찾는 것은 다음 문제들이다. 왜냐하면 이 문제에 매달리면 설화 사료를 이용한 역사적 연구 방법보다 다른 사료에 대한 연구로 논지가 빛나가 버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관심 있게 주목해야 할 문제는 설화의 사료적 자질이다. 사료로서 설화의 속성이 역사 연구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주었다고 하더라도 설화가 사료로서 자질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다 헛일이다.

다시 말하면 문헌사료의 장점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문헌사료 자체가 사료로서 과학성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오히려 역사 해석에 차질만 초래한다. 왜냐하면 왜곡된 기록이나 불확실한 기록을 근거로 역사를 연구하게 되면 역사 해석에 치명적 오류를 빚게 되는 까닭이다. 위작인 기록이나 위서라 할 만한 문헌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금석문조차 조작하는 사례가 있다. 설화는 전승과정에 필연적으로 변화를 겪는 것처럼, 연구자가 임의로 자료를 조작할 수 있다. 자료 변형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설화는

33) 『삼국유사』에 수록된 호국룡 관련 기사와 감은사, 이견대 관련 기사 등의 문헌사료, 세간에서 지금까지 구비전승되고 있는 호국룡 설화 등 구전사료, 그리고 현장에 지금 까지 남아 있는 대왕암, 감은사, 이견대의 유적 물질사료 등은 상호보완 관계 속에서 새로운 역사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이러한 문제 인식은 임재해, 설화 작품의 현장론적 분석(지식산업사, 1991)에서 자세하게 다루었다.

34) Marc Bloch, *L'apologie pour l'histoire, ou métier d'historien*, Eng. tr. *Historian's Craft*(1953), 64쪽. 車河淳, 같은 책, 76쪽에서 참조.

원본이 확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때마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되어도 다른 각편으로 받아들이면 그만이다.

따라서 설화 자료는 반드시 과학적 근거를 갖춘 것이어야 사료로서 가치가 있다. 대중들을 위해 개작하여 간행한 동화집이나 설화집에 수록된 자료들은 사료로서 부적절할 뿐 아니라, 설화의 학술자료로서도 문제가 있다. 언제 누가 이야기하고 누가 조사해서 정리했는지도 모르는 자료도 설화자료로서 과학성을 갖추지 못한다. 설화 자료의 과학성은 현지조사를 통해서 설화를 채록하고 그 조사력과 조사상황을 정확하고 자세하게 밝힐 때 확보된다. 어떤 상황에서 언제 누가 해당 설화를 구연했는가 하는 근거가 밝혀져 있어야 한다. 이른바 조사력이 뒷받침되고 설화자료가 이야기꾼이 구연한 원문대로 채록되었을 때, 설화자료로서 과학성을 획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료들과 달리 설화를 포함한 구비전승 사료들은 조사자가 임의로 조작할 수 있다. 마치 해당 자료를 직접 수집한 것처럼 필요에 따라 조사력을 밝히고 설화자료를 조작하여 전거로 인용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문헌사료나 물질사료들은 이러한 조작이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로 사료의 매체에 따른 제약이 있다. 그러나 설화의 경우에는 조작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 따라서 일정한 방향으로 연구의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 연구자가 마치 직접 설화를 수집한 것처럼, ‘모년 모월 모시 어느 마을에서 김아무개로부터 들은 설화’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실제로는 자료를 조작하여 인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작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료로서 설화자료를 인용할 때 객관적인 설화 자료집이나 현지조사보고서의 자료들을 인용하도록 해야 한다.

가장 객관적인 설화자료는 다른 사람이 현지조사하여 보고한 자료들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연구에 필요한 자료들을 잘 조사하여 보고해 두었을 가능성은 아주 낮다. 더군다나 자료의 객관성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러한 자료를 조사해서 보고하도록 기다릴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남이 조사해서 보고한 자료는 해석에 일정한 한계가 있다. 연구자가 문제의식을 갖추고 직접 조사한 자료야 현장상황에 맞게 독창적인 해석을 다각적으로 시도할 수 있기 때문이며, 현지조사 체험이 자료를 해석하는 역량을 크게 높여주기 때문이다. 물질자료도 마찬가지이다. 현지

에서 유물이나 유적을 직접 조사하여 연구하는 것과 다른 사람의 사진이나 실측도를 보고 연구하는 것은 현저한 차이가 있다. 현지조사와 현장체험이 중요한 것은 이 때문이다.

남이 조사해서 보고한 자료는 요지부동이다. 보고된 내용 외에 더 이상 어쩔 수 없다. 자료를 해석하는 연구자의 관점에서 더 이상 물어볼 수도 없다. 한갓 텍스트로서 분석대상만 객관적으로 존재할 뿐 분석에서 고려되어야 할 다양한 컨텍스트는 확보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연구자가 현지조사를 직접 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경우, 설화만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설화와 관련된 다른 문제에 관해서도 보충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설화는 아니라도 다양한 질문을 통해서 면담자료나 구술사료들을 함께 이끌어낼 수 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컨텍스트를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조사과정에 겪었던 현장의 체험이 무형의 컨텍스트가 되어 텍스트 해석의 편벽성을 극복할 수 있다. 비록 설화자료만 확보했다라도 현장 체험을 근거로 사회적 상황과 문화적 맥락에 입각한 총체적 이해의 길이 열린다. 그러므로 자료의 객관성 확보와 현장론적 해석의 총체성 사이에는 딜레마가 존재한다.

자료와 해석의 딜레마를 해결하는 방법은 현지조사에 의한 자료 작업과 수집된 자료를 해석하는 연구 작업을 이원화하는 것이다. 먼저 자료 작업을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 현지조사를 직접 수행하고 그에 따른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보고서를 먼저 간행한다. 설화 조사보고서가 완성되면, 보고서에 수록된 설화 작품들을 자료로 인용하면서 적절한 해석을 시도하며 역사를 해명하는 연구작업을 수행한다. 이때 인용되는 자료는 자기 것이면서도 이미 보고서로 객관화된 것이므로 임의로 조작하거나 왜곡할 수 없다. 연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연구 대상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객관화하는 작업인데, 현지조사보고서에 수록된 자료는 이미 어느 정도 객관화된 것이다.

그러므로 설화자료를 대상으로 역사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자라면 남이 수집한 자료만으로 연구하겠다는 생각보다 스스로 현지조사를 통해 설화자료를 충분히 확충하고 이를 자료화하는 작업을 거친 뒤에, 이 자료를 근거로 역사 해석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6. 역사학의 새로운 방향과 설화의 해석

설화를 통한 역사 연구도 역사학의 방향과 함께 갈 때 의의가 있다. 인류의 역사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다 자유롭고 보다 풍요로운 삶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³⁵⁾ 나아간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거론한 사람과 자유, 풍요, 지속 가능성의 문제는 차례로 주체의 민중성과 정치적 민주성, 경제적 생산성, 생태학적 공생성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³⁶⁾ 따라서 나는 우리 역사가 주술의 시대에서 예술의 시대, 변혁의 시대로 나아왔으며, 앞으로는 공생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전망한다.³⁷⁾ 이것이 역사의 진보 방향이라면 역사학의 연구방향도 이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실천적인 삶도 역사의 진행 방향과 일치해야 반동적인 삶을 산다는 지탄을 받지 않거늘, 하물며 역사를 연구한다고 하는 사기들의 역사학이 역사의 진행 방향과 거꾸로 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역사와 역사학을 함께 거스르는 반동적인 학문에 봉사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설화를 대상으로 한 역사적 연구가 지배층의 처지에서 사회를 통제하고 지배하기 위한 기술적 관심에서 경험분석적 방법으로 연구된다면 문제가 된다. 과거의 지방지(地方誌)는 실제로 지방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한 자료로 조사되고 이용되기도 했다. 중앙정부에 의해 시행된 지방지의 작업은 세수(稅收)를 늘리고 병력과 부역을 동원하는 데 긴요한 자료로 쓰였다. 기술적 관심에서 지방의 문화와 역사가 조사되고 분석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역사의 진보를 가로막고 지배체제를 옹호하는 구실을 하는 역사학은 당연히 극복되어야 마땅하다. 그러자면 실천적 관심이나 해방적 관심에서 역사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역사연구는 사회적 상황과 그 내부의 숨은 의미를 밝혀냄으로써 문화의 의미나 가치를 이해하려는 실천적 관심에서 역사해석적 방법으로 나아가거나, 인간의 자유를 확대하고 사회의 진

35) 임재해, 한국민속학과 현실인식(집문당, 1997), 6쪽.

36) 임재해, ‘민속문화의 현대적 수용과 변용의 논리’, 실천민속학회 편, 민속문화의 수용과 변용(집문당, 1999), 21-26쪽에서 이 문제를 자세하게 다루었다.

37) 임재해, ‘민속사의 인식과 시대구분의 모색’, 임재해·한양명 편, 한국민속사입문(지식산업사, 1996), 35-47쪽에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였다.

보를 촉진하려는 해방적 관심에서 비판적 방법으로 나아가야 한다.³⁸⁾ 따라서 설화에 의한 역사연구 곧 설화의 역사학도 같은 관심과 방법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해방적 관심에서 시작하는 역사학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그 동안 역사학의 대상에서 소외되었거나 억압과 지배의 굴레 속에 갇혀 있었던 민중과 여성, 그리고 지역의 역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러자면 역사학은 왕조사에서 민중사, 남성사에서 여성사, 중앙사에서 지역사로 나아가야 한다.³⁹⁾ 왕조교체나 중신들의 권력다툼을 주로 다루는 왕권 중심의 정치사나, 영토 확장과 장군의 전공을 주로 다루는 영웅 중심의 전쟁사가 지닌 한계를 극복하는 것도 역사학의 과제이다. 제왕이나 영웅이 역사의 주체라고 하는 영웅사관에서 해방되어야 역사학이 역사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 따라서 역사의 주체인 민중의 일상적인 삶의 역사를 중심에 두는 생활사와 문화사를 주목하고 이웃나라와 전쟁한 무장들의 행적보다 민간인들에 의한 교류사나 문화교섭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나는 일찍이 ‘전설과 역사’⁴⁰⁾ 또는 ‘문학과 역사학’⁴¹⁾ 문제를 다루면서 우리 역사학이 중앙사에서 지방사, 정치사에서 생활사, 왕조사에서 민중사, 제도사에서 문화사, 남성사에서 여성사, 전쟁사에서 문화교섭사, 사실의 역사에서 의식(意識)의 역사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⁴²⁾ 비판적 시각에서 기존 역사학을 보거나 해방적 관심에서 새로운 역사학을 모색하게 되면 이러한 역사학의 방향을 쉽게 이끌어낼 수 있다. 설화나 민속과 같은 민중의 전승문화를 현장에서 수집하고 분석하게 될 때에도 자연스럽게 같은 역사학을 추론하게 된다. 지역사나 민중사, 여

38) J. Habermas, *Knowledge and Human Interest*(Beacon Press, 1971), 308쪽 참고.

39) 芳賀 登 著, 呂博東·小林辛夫 譯, 地方文化的 保全(教育科學史, 1985), 35쪽에 의하면, 일본의 사학자 하야시야(林屋辰三郎)는 민주주의를 확립하고 민중의 역사를 고찰하기 위해서 사회체제로부터 소외된 部落民과 地方民, 女性들을 해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40) 임재해, ‘전설과 역사’, 韓國文學研究入門(지식산업사, 1982), 125쪽.

41) 林在 海, ‘歷史의 理解와 文學의 歷史的 研究’, 정신문화연구 19(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년 겨울호), 26-40쪽.

42) 林在 海, 위의 글, 33쪽. “그러므로 역사학의 방향은 사실의 역사에서 의식의 역사로, 지배층의 역사에서 민중의 역사로, 중앙의 역사에서 지방의 역사로, 정치의 역사에서 생활의 역사로 나아가갈 필요가 있다.”

성사, 생활사, 문화사 자료는 문헌사료에서 찾기 어렵다. 그러나 구전사료이자 민중의 전승물인 설화 및 민속문화에는 그러한 자료들이 아주 풍부하다. 그러므로 설화를 사료로 삼아 역사연구를 하게 되면 자료가 지닌 계급적 속성과 문화적 성격 때문에 자연스럽게 해방적 관점에서 비판적 방법으로 역사해석을 하게 마련이다.

역사연구는 실증적으로 어떤 사실이 있었는가 하는 문제를 밝히는 일 못지 않게, 그러한 역사에 대하여 민중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의식의 역사도 중요하다. 허구성을 지닌 설화에는 사실의 증언 못지 않게 사실에 대한 전승집단의 수용 태도가 일정하게 갈무리되어 있다. 따라서 설화를 사료로 다루게 되면 ‘사실의 역사’와 함께 ‘의식의 역사’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설화를 사료로 주목하게 되면 민중의 변혁적 세계관이나 민중의식의 성장과정을 쉽게 포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식의 역사는 제3세대 아날학파들이 주장하는 심성의 역사와 만난다.

이처럼 예사 사람들의 일상생활의 역사를 밝히고 문화 현상을 통해서 역사 해석을 하는 경향은 역사학의 새로운 흐름으로서 흔히 ‘신문화사’라 일컫는다. 신문화사의 경향은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영미에서는 문화연구와 미시사가 만나고 프랑스 아날학파들은 심성사를 추구하며, 독일에서는 일상생활의 역사를 주목한다. 사회경제사가 겨냥했던 밑으로부터 치받치는 역사를 추구하되, 기존의 거시적인 설명으로 채울 수 없었던 민중들의 구체적인 생활사를 치밀한 조사와 세밀한 묘사로 재구성해 내는 것이 신문화사의 경향이다. 따라서 신문화사는 엄격한 실증적 증거 대신 역사적 실마리와 가능성의 역사를 지향하며, 사회를 하나의 문화적 텍스트로 다루는 한편, 문학성 짙은 이야기식의 역사서술을 지향한다. 그러므로 신문화사는 상상력이 지나치게 보태어져서 역사로 보기 어렵다는 비판까지 받는다. 그러나 역사를 다양하게 볼 수 있고 역사를 새롭게 조명한다는 점에서 신문화사의 유용성은 드높다.⁴³⁾

설화는 신문화사 연구의 중요한 사료로서 주목되어야 할 뿐 아니라, 역사설화는 설화 자체가 신문화사의 한 양식이라 해도 좋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민중의

43) 신문화사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광차섭 엮음, 미시사란 무엇인가(푸른세상, 2000) 및 조한욱, 문화로 보면 역사가 달라진다(책세상, 2000)를 참조하기 바람.

의식을 이야기 형식으로 자세하게 담아 전달하는 것이야말로 미시사이자 가능성의 역사이며 상상력에 의한 이야기식 역사서술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설화에는 실증적인 증거보다 민중의 세계관을 담고 있기 때문에 민중의 일상사나 심성사 자료로 제격일 뿐 아니라, 실제로 신문화사 연구를 표방하는 사학자들은 지배층의 문헌자료와 현장에서 전승되는 민중들의 구비문학 또는 민속문화 사이의 심각한 불일치를 주목한다. 이러한 불일치야말로 지배층 중심의 거시적 역사의 상투성에서 해방되어 피지배층 중심의 미시적 역사의 일상생활사를 가능하게 만든다.

거시적 시각의 인과적인 설명보다 미시적 현장의 문화적 의미를 해석하고, 선형적으로 주어진 보편적 국가사보다 한 개인이나 가족 또는 마을의 구체적 역사, 곧 개인사나 가족사, 마을사를 주목하기 위해서는 치밀한 현지조사가 필요하다. 문학적 연구에서도 그러해야 하지만 역사적 연구에서는 설화의 현지조사가 더 체계적으로 조사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렇게 과학적으로 조사되고 수집된 설화 자료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사료와 동등하게 인정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설화는 옛날의 이야기라는 점에서 사료 구실을 하지만, 일정한 즐거리를 지닌 이야기라는 점에서 문학성을 더불어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설화로서 문학성은 허구적 구성과 창조적 표현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다. 다시 말하면 설화가 옛날이야기이긴 해도 실화는 아니란 말이다. 문학적 구조물에 맞게 꾸며낸 창작물이라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물론 문학도 역사적 사실, 특히 생활사나 문화사 내용들을 잘 갈무리하고 있다. 사료에 없는 역사적 사실을 문학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실감나게 보완해주고 무미건조한 역사적 사건을 쉽고 재미있게 대중에게 전달하는 기능도 무시할 수 없다. 사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문화적 상황을 통해 얼마든지 사료에 없는 삶의 진실을 복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학자 강만길은 박경리의 소설 『토지』를 두고 “한 마디로 말해서 토지는 사료에 구애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역사적 진실에 접근한 농민 중심의 근대 민족생활사, 농민 중심의 근대 민족운동사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⁴⁴⁾ 평가했다. 소설이 구체적 사실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지는 못하지만, 보편적 사실의 생생한 재구성을 통해 역사적

44) 강만길, ‘소설 土地와 한국근대사’, 문학과 역사(민음사, 1982), 191쪽.

진실을 한층 실감나게 포착해 주기 때문이다.

여기서 다시 문제되는 것이 역사의 주체이다. 역사의 공백을 채우는 내용도 문제이지만 그 내용을 누구의 시각에서 누구의 처지에 따라 서술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새 역사학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역사 연구는 특정한 사회구성체 성원들의 시각을 알게 모르게 반영하게 마련이다. 따라서 누구 중심의 역사 연구를 수행하는가 하는 것이 큰 쟁점이 될 수 있다. 독립운동을 보는 보수우파의 시각과 진보좌파의 시각은 상당한 차이를 지니고 있어서, 최근까지 한국독립운동사에는 좌파적 독립운동가는 아예 다루는 일조차 금기로 여겼다. 좌파의 역사는 끼어 들 자리조차 없었던 셈이다. 동학농민혁명도 관변측 시각에서 보는 이는 ‘동학란’으로 폄하하지만 농민의 처지에서 보는 이는 ‘동학농민전쟁’으로 적극적인 해석을 시도한다.

그리고 보면 역사는 권력관계에 따라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이데올로기적 구성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상 모든 역사 서술과 해석은 어느 처지에서 보는가 하는 데 따라 끊임없이 재구성되고 재정리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지배자뿐만 아니라 피지배자도 저마다 자신들의 실천적 행위를 정당화하고 과거 사실들을 유리하게 각색하는 까닭이다. 특히 역사 서술의 기득권을 지닌 지배자들은 피지배자들의 과거를 부적절한 것으로 취급하여 지배적 담론의 공간에서 배제시켜버리기 일쑤이다. 따라서 이러한 갈등 속에서 역사는 엉뚱하게 각색되거나 왜곡되는 데 머물지 않고 날조되는 비약에 이르기기도 한다. 그러므로 이제 역사란 ‘무엇인가’, 또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하는 질문보다 역사란 ‘누구의 것인가’ 또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는 질문으로 바꾸어야 제대로 된 물음이 될 것이다.⁴⁵⁾

역사란 다른 집단에게는 상이한 의미를 지니는 논쟁적 용어이자 담론이다. 따라서 어떤 집단은 갈등과 고통 없는 매끈하고 순조로운 역사를 기대하는가 하면, 어떤 집단은 혁명을 위한 전략과 전술을 제공해 주는 역사를 기대한다. 자연히 혁명가가 원하는 역사는 보수주의자가 원하는 역사와 다를 수밖에 없다. 역사는 바로 현재를 통제하는 수단이기도 하고 현재를 변혁하는 수단이기도 한 것이다. 기

45) 케이스 켄킨스 지음, 최용찬 옮김, *누구를 위한 역사인가*(혜안, 1999), 58쪽 참고.

득권층들은 현재의 자신들에게 존재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과거 조상들의 삶을 정당화하는가 하면, 민중들은 민중들대로 자신들의 역사적 뿌리를 찾아서 현재와 미래의 전망을 세우고자 한다. 그러므로 모든 계급이나 집단은 자신들을 위한 독자적인 역사 곧 그들 자신의 집단자서전을 쓰고 있는 것이다.⁴⁶⁾

설화는 바로 민중들의 집단자서전이자 공동의 문학유산이다. 지배담론으로 형성된 지식으로서 역사가 아니라 민중담론으로 형성된 문학으로서 역사가 설화인 것이다. 따라서 설화에는 역사 주체로서 민중사관이 내포되어 있는 것은 물론, 문학적 형상화를 담보하는 민중적 창조력이 건강하게 자리잡고 있다. 설화의 문학성이 민중적 감수성을 자극하면서 집단자서전으로서 민중의 역사를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하는 구실을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화의 문학적 형상성이 뛰어날수록 사료로서 역사적 한계는 더 커진다. 사실이 설화보다 더 극적일 수도 있지만 설화는 설화의 문학적 논리에 따라 허구적으로 창조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한계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연구자가 별도로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한 노력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설화를 사료로 이용할 때에 하나의 완전한 사료로서 설화작품을 주목할 것이 아니라, 설화작품을 해체하여 사료로서 증거 능력을 갖춘 부분만 별도로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설화를 사료로 다루는 역사적 연구에서는 설화작품의 해체비평이 필수적이다.

둘은 해체비평을 하더라도 설화 자료만으로 역사해석을 하는 데는 문제가 있으므로 다른 사료들을 다양하게 동원하여 상호 검증을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우선 설화작품 내부에 역사적 사실과 모순을 일으키는 것이 없는가 하는 검토를 해야 한다. 특정 시대에 관한 이야기를 하되 이야기의 구체적인 내용이 그 시대의 역사적 상황과 맞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설화의 역사적 증거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언어학적 검토와 고고학적 자료, 고전적인 유물, 문헌기록, 민속자료 등 다양한 사료들을 연관성 속에서 살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논의한 것처럼, 설화 사료에 의한 역사적 연구는 순전히 사료의 확장

46) 케이스 젠킨스 지음, 최용찬 옮김, 앞의 책, 59-60쪽.

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역사연구의 방법을 새롭게 개발하고 민중사관에 입각해서 역사학의 관점을 민주적으로 전환시켜 주는가 하면 새로운 역사학인 신문화사 또는 미시사를 가능하게 하는 의의를 지니고 있다. 사관은 물론, 역사학의 방법과 연구 경향을 창조적으로 발전시킨다는 점에서 설화 사료를 통한 역사연구의 전망은 밝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는 현대학문의 흐름인 현장연구와 다학문적 접근을 촉발하는 구실도 감당한다. 설화 사료를 통해 역사연구를 하려면 필수적으로 현지조사에 의해 설화를 수집하고 현장상황을 주목하는 현장연구를 해야 할 뿐 아니라, 일정한 역사적 사실을 해석하기 위해 여러 분과학문의 관점에서 다학문적 해석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설화 역사학은 정체되어 있는 고전적 역사학을 역동적으로 변화 발전시켜 현대학문으로서 거듭나게 하는 데 기능적인 구실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